

촌테레 후배가 발정기에 들어왔습니다.
~뇌가 젖어드는 농후 섹스~

cv. 이치쵸 히라메(一条ひらめ)님

트랙 01

《늑대 인간 후배에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뭘니까, 선배.

하아… 보면 알잖아요. 일하는 중입니다.
유능한 선배와는 달리 전 아직 못 돌아갈 것 같네요.

내일까지 이거…… 정리해야 돼서……. 또 과장님한테 혼나겠네…….

음…… 기분이요?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아…… 굳이 말하자면

“자기 혼자 정시 퇴근이라 신난 사람”한테 얹혀서 성가실 뿐.

아니……, 막차 전까지는 끝날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하아…… 그보다, 앞으로 숙여서 들여다 보는 거 하지 말아줄래요?

오늘 옷…… 가슴이 너무 드러났다고요. 남자들 전부 뻘뻘 쳐다보던데요.

네? 성희롱이라면 오히려 이쪽이 피해자거든요.
보기 싫은 가슴골을 억지로 봐야하는 쪽의 입장도 되어보세요.

아……, 네네……. 말이 지나쳤습니다.

……그보다 당신, 항상 그렇지만
내 귀라든가 꼬리라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있잖아.
그거야말로 진짜 성희롱이거든요.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떨어뜨린 서류 주워줄 때
도와주는 척하면서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작은 소리로)
갑자기 만지니까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당황했다고…….

음…… 바닥이? 아, 더러웠다고……?
그런……, 거야……? 그럼 꼬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잡아준 것뿐……?

아, 아니……!
그렇다 해도 쓸데없는 참견이고…….
내 꼬리가 어떻게 되든 선배하고는 상관 없잖아.
그냥 놔두세요.

우쭈쭈 하지 마요……! 사춘기도 아니고……!
아아, 웬지 얼버무리는 것 같아…….

……하여간…, 그렇게 머리 쓰다듬는 척하면서 귀를……
……앗, 그만… 거기……, 간지러워……, 앓…….

……웃… 아, 진짜! 그렇게 늑대 귀가 좋으면 다른 놈들 거나 만져!

딱히 드물지도 않잖아. 우리 과에만 세 명이나 있고…….
그 왜…… 선배한테 항상 붙어있는 신입 여자도 그렇잖아요.

항상 꼬리 흔들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그 녀석이라면 부탁하면 만지게 해주지 않겠어요?

……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거가 좋다…… 고?

그게……, 저기…… 무슨 뜻…….

응…, 응……. 내…… 털이……?
본가의 허스키를, 닮았으…… 니까…….

하아~... 그런 거냐고.

(작은 소리로)

이런 얼빠진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아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됐죠? 선배.

어쨌든, 자꾸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에이예이..... 수고하세요.

트랙 02

《약해진 후배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사원 기숙사 아파트】

……네에, 누구세요…… 아니, 서…… 선배?!

왜 제 방에…… 아아, 아니면 또 술 취해서 실수했어요?
선배 방은 여기가 아니라 옆이에요, 옆…….

음……? 안 취했으면 왜…….
나 오늘 회사 조퇴한 거 알죠?

(보란 듯이 기침)
쿨룩쿨룩…… 훌쩍……. 보다시피 감기 몸살 때문에……
그쪽 상대하고 있을 여유 없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뭐, 뭐어?! 간병 같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요!

으……, 그럼 혹시…… 그 양손에 든 묵직한 봉지는 설마…….

액……, 스포츠 음료에…… 기운이 나는 식재료…….
뚜…… 뚝배기까지?!

……으… 그런 얼굴 하지 마요…… 알았어, 알겠어요!

재료……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그것만 만들면 바로! 본인 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키의 방】

후우…… 후……,
음…… 우물우물…… 꿀꺽.

응……, 맛있어.

이거, 뭐야? 죽…… 치고는 뭔가 화려한데…….

아니, 무겁지 않아……. 오히려 부드러운 맛이라, 딱 좋아…….

……흐음, 그런 게 있구나.

선배 요리 잘하네.

난 전혀…… 항상 외식이나 편의점……
그래서 수제 요리 먹은 거, 엄청 간만이야…….

선배의 남자친구, 좀 부럽다.

아…, 미안. 이미 헤어졌다고 했나.

그때 선배, 술자리에서 코까지 빨개진 채로 영영 울고……
“첫 남친이었는데, 상대는 엔조이였다~”라면서.

다음날도 부은 눈으로 출근하니까
다른 과 놈들한테까지 다 들켰잖아.

몰랐어?

“선배를 울리다니 용서 못 해!” 라든가,
“내가 위로해 주고 싶다~” 라면서,
멋대로 소문의 온상지가 됐지.
선배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응? 아…… 몸 상태는…… 그냥 감기니까…… 약 먹으면 괜찮아.

(작은 소리로)

아니, 약 부작용 때문에 좀, 나른…… 한가.

음……, 잘 먹었습니다.

(식기 치우는 여주)

저기……. 선배, 고마워요.

아니, 잘 먹었으니까 선배도 가서 얼른 자.

어…, 응……. 와이셔츠 그대로인데……

나른해서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서…… 그대로 잤어…….

우왓, 알았어……. 제대로 옷 갈아입을 테니까……! 직접 할 수 있어……!

뭔가…… 시선 신경 쓰이는데…… 저쪽 보고 있어…….

(뒤를 돌아보는 여주를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음……. 다 입었다. 이제 됐어.

확실히 좀 편해진 것, 같아…….

어……? 잠깐, 이번엔 무슨……. 왜 이쪽으로 오는 건데…….

등, 안 문질러줘도 되니까……!

아니…… 그야, 아직 나른하긴…… 하지만…….

땀…… 흘렸을 수도 있고…….

응…… 후우…….

(다정하게 등을 어루만지는 여주)

하아……. 이제… 마음대로 해…….

으으……. 뭔가, 어린애가 된 것 같아, 이거…….

음…… 그야, 이렇게 큰 아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아……. 선배 손… 작은데, 따뜻해……

사실은 선배에게…… 이런 약해진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새근… 새근…….

트랙 03

《후배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괴로운 듯한 거친 호흡)

……으응……. 어, 라……. 언제 잠들었지……?

……하아, 큰일났다. 약 안 먹고 잠들어서…… 응.

……자지…… 단단해졌어… 웃…….

선배…… 랑, 같이 있었으니까……. 응……, 평소보다, 위험해…… 웃.

……하아, 하아. 선배 냄새……, 아직 남아서…… 응, 후우…….

(여주가 눈을 뜬다)

……허……?

우왓?! 선…… 배?!

왜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자는 얼굴을 보고 있다가 같이 잠들었다고……?

하아……. 남자 방에서 잠들다니……. 얼마나 허술한 거야…….

(작은 소리로)

잠깐만, 그보다 자는 얼굴……? 자는 얼굴을 봤다고……?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 아닌 건 아닌데…….

자…… 지 맞는데. 응……. 딱딱해지고 있긴…… 한데…….

어…… 어쩔 수 없잖아……!

그…… 감기라고 거짓말했지만, 나…….

바, 발정기…… 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발기, 해서……, 전혀 가라앉지도 않고…….

약으로, 억눌렀는데……, 선택 때문에 밤에 먹는 걸 깜빡해서…… 그래서…….

……뭐? ……어쨌서, 약의 부작용이 심하다…… 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들 무서워해서, 인간에겐 발정기를 숨기는 녀석들이 많은데…….

…뭐……?

……그런가. 전 남자친구가……, 늑대인간…… 이었구나…….

……그렇… 구나…….

……웃.

(여주를 밀어 넘어뜨린다)

(궂가에서)

그럼 선택은, 내가, 발정기라는 거 알고 온 거네…….

알고도…… 이렇게 무방비로…….

응…….

선택……. 저기, 혹시 나한테 거칠게 당하고 싶었어?

부정해도 소용없어……. 늑대의 수컷이 발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응…….

알고도 내 방에 찾아온 거잖아? 응……?

안 돼……. 오늘은 이제 못 돌려보내…….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는데……. 선배 때문에…….

선배 가슴, 계속 만지고 싶었어…….

맨날 야한 옷이나……, 입고 다니고……
참느라 힘들었다고…….

하아……. 이런 감촉이구나. 최고야……. 선배의 가슴, 응…….

음……, 그렇게 몸을 비틀어도……. 이제 못 도망가…….
그만, 포기해…….

이거 봐, 날뛰니까…… 브래지어, 틀어져서……
옷 안쪽으로 젖꼭지가 속 튀어나왔잖아…….

바짝 서서 속옷 들어올리는 거 귀여워…….
여기, 손가락으로…… 만져봐도 돼……?

젖꼭지, 옷 위에서…… 빨아줄……. 테니까. 응…….

…아하, 귀여운 젖꼭지, 조금 비쳤어……
……옷 젖은 곳 차가워?

그럼…… 내 혀로, 이렇게…… 빨아주면……
따뜻하지……? 이상한 느낌……? 잘 모르겠어?
그럼 더 해줄게…….

응……. 이젠, 직접 빨고 싶어. 옷 올려줘…….

아아……, 젓꼭지 단단해져서…… 새빨갳게 됐어. 귀여워…….

저기, 선배……. 직접 이렇게…… 양손으로 젓을 감싸서……
그래…. 들어올려줘……. 내가 빨기 쉽게,
젓꼭지 쭈우욱…… 내밀어 봐……. 그렇지.

으응…… 귀여운 목소리 나와버렸네.

혀끝으로 할짝할짝 하는 거 좋아?
유륜의 말랑한 곳…… 이렇게… 핥아주면…….

방심하고 있는 끝쪽도……,
쭈욱……, 하고…….

역시 젓꼭지…… 좋아하는구나……. 그럼 좀 더……기분 좋게 해줄게……

이쪽 젓꼭지……아암…… 이렇게, 딱 붙어서……
빨면서 입안에서, 꺽꺽 핥아줄게…….

하아……. 맛있어, 선배 젓꼭지…….

허리, 흔들려……. 이제, 이쪽도 욱신겨려?
다리, 벌려…, 응…….

……하아, 완전히 젖었잖아……. 젓꼭지만으로 이렇게 되다니…….
팬티, 찰싹 달라붙었어, 응…….

아, 여기다……. 클리, 발기해 있어서
금방 찾았어……. 잘했지……?

저기 있지……. 선배의, 여기……

야하고 민감한 클리토리스……, 어떻게 해줄까……?

응…, 응…….

야하게 만져줬으면 좋겠구나……. 흐음…….

응…, 이렇게……? 이런 느낌……?

다리……, 오프리면 안 되지…….

누르고 있어줄게…….

선배의 보지…… 클리를 만질 때마다…… 질척질척 소리나서…… 너무 야해…….

하아…… 이제, 전부 벗어……. 나도…, 벗을게…….

굉장해……. 줄줄 침 흘리면서……, 기분 좋아보여…….

이거……, 괴롭혀져서 딱딱해진 클리……,

직접 만지면 어떻게 될까……?

……앗……그렇게 야한 소리가 나와……? 선배, 귀여워…….

아아…, 야해……. 움찔거리는 거 굉장해…….

음……, 잘게 흔들면, 이렇게…….

저기..., 선배..... 아까부터 클리로 가볍게 가고 있지.....?

근데....., 클리만 계속 만지니까....., 보지..... 못 참겠어?
벌써 안쪽에 갖고 싶어.....?

그럼, 자...... 내 거, 받아들일 준비해줘.....?
선배의 미끌거리는 보지에..... 자지 문질리서.....
좀 더 끈적거리게 해줄게......

대단해...... 애액이 넘쳐흘러.....
이것 봐...... 이렇게, 끝쪽, 살짝만 넣고......
자지로 쓱쓱 문지르다가..... 웃,

뽀아내, 면....., 보지가,
안달 난 것처럼 실을 늘리면서..... 쭈욱~ 하고......
자지야, 가지마~ 하면서......
너무 야하잖아......

아아....., 보지 엄청나게 뜨거워...... 선배도 발정하고 있네......
빨리 내 늑대 자지를 안쪽에 달라고, 벌름거리면서 조르고 있어......

웃, 하아...... 더는....., 자지가 아파...... 넣고 싶어......
선배의 끈적끈적한 보지에 넣고 싶어.

저기, 옆드려서 엉덩이만 내밀어줘......

하아..... 허리, 얹아...... 야하고 귀여워, 선배......

응....., 콘돔? 그런 거..... 안 써......

싫어...... 그대로 할 거야...... 선배랑..... 생으로...... 응, 아, 아..... 웃.
(밀착해 누운 채로 뒤로 삽입)

큭, 좁아……, 선배……. 자지예, 달라붙어서… 핑장해…….

그래, 그래……, 착하지……. 보지로, 그렇게 안달내지 않아도,
기분 좋은 곳……, 잔뜩 찢러줄… 테니까…….

아아, 기분 좋아……. 안이, 미끌거려서……, 허리가… 녹을 것 같아…….

앗……, 좋아, 선배……. 너무 좋아, 선배…….

아아……, 선배. 젖꼭지……, 시트에 비벼져서
앙앙 신음이나 흘리고……, 음란해…….

음……, 나도 너무…… 너무 좋아서,
허리가, 저릿저릿해……. 선배…, 선배…….

저기, 선배……. 늑대인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말이지…… 이것도 알고 있어?

우리들 늑대는…… 짝으로 삼기로 결정한 상대에게……

생으로……, 이렇게 직접…… 성기를 푹푹 찢어서,

겉쪽한 정액을, 안쪽까지 쏟아부어서…, 마킹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짝이 된 상대와는, 평생 헤어질 수 없어.

단 한 명만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야…….

……저기, 선배. 짝이 되어줘……. 내 짝이……. 응? 괜찮지……?

아아…… 이제, 나올 것 같아…… 뽕우웃하고, 안에…… 안에 내보낼 거야…….

아…… 좀 더, 더…… 보지 내밀어……, 선배.

제대로…… 자궁 입구 열어야 해……? 응……?

내 정자…… 뱃속에서 전부, 받아줘…… 웃, 선배…….

앗, 좋아해…… 좋아……. 으, 이제…… 갈, 것 같……!

크윽……. 엄청나게, 조여와. 짜아악 하고…….

아…, 선배…….

트랙 04

《아이 만들기 교미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아……, 아직…… 전혀 부족해…….

응…….

간 직후라 해도 안 돼. 내 거, 아직 전혀 시들지 않았어…….

느껴지잖아……? 봐, 안에서 자지가…… 단단한 채로 있는 거…….

이대로…… 넣은 채로, 이쪽 봐줘…….

위를 향해서……, 다리는 이쪽. 응……, 날 껴안고…….

다리…… 감아…….

(밀착 정상위 자세)

일단은…… 천천히 안쪽, 문질러줄게…….

내 자지 맛……, 보지로 더 기억해줘……?

응……, 또, 못 참겠어?

앙앙♡하는 소리, 귀여워……. 엄청, 자극적이야…….

……좀 빨리 할게…….

마주 보고 하는 거…… 잔뜩 키스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아…….

게다가…… 가슴이 딱 붙어 있어서, 선배의 젖꼭지가……,

내 가슴에 쿡쿡 닿아서…….

아, 또……. 핏고 싶어졌어. 젖꼭지 먹고 싶어…….
가슴도 온통 질척하게 만들고 싶어…….

아-, 좋아……. 갈 것 같아……. 선배는?

응……, 침으로 번들거리는 젖꼭지 잡고……
퍽퍽 찢어줄 테니까……, 선배도 가 버려…….
자아…… 퍽퍽 찢르는 거, 기분 좋…… 지?

앗, 선배…… 허리 떴어……, 위험, 해…….

또, 가 버려……, 나와……. 간다, 간, 다……. 으.

하아…, 하아……. 아, 응…….
(상체를 일으켜 정상위로 다시 움직인다)

미안……, 전혀 부족해…….
무리야……. 못 참겠어…, 웃, 미안…….
하아……, 발정기 섹스…,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아…….

응…… 아, 선배……, 안 돼. 허리 빠지 마…….

응……, 하아, 다리, 내 팔에 걸쳐…….
이렇게, 내 체중을 실으면……. 자, 더는 도망칠 수 없어…….

뭐더라, 이거……. 교배 프레스? 었던가…….
(※교배 프레스: 여성의 다리를 끌어안고 짓누르듯 덮치는 굴곡위.)

하아……웃. 다리, 민망할 정도로 벌린 채로 고정시켜서……,
야하게 내밀어진 질척한 보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푹푹 박는 거……, 너무 좋아…. 흥분돼…….

저기, 선배…, 선배……。 늑대랑 하는 교배 섹스, 기분 좋아?
내 거…… 꽤 크니까……, 보지 괴롭겠지…….

이렇게…… 꾸우욱하고…… 무게를 실으면……
응……, 자궁 속까지 들어가버릴 것 같아…….

전 남친이랑 비교하면 어때?
내 쪽이……, 더 기분 좋…… 지?

이렇게나…… 너무 좋아서 보지가 질푼해졌는걸…….

나 말야……, 선배가 다른 수컷에게 마킹되어 있으면…… 냄새로 알 수 있어…….

전 남친은…… 정말 선배와 엔조이였구나…….
진심이였다면 진작 마킹했을 테니까.

저기……, 선배의 여기…… 가장 안쪽의 소중한 곳에……,
생으로 정자 뿜우웃하는 거……, 내가 처음이지? 나뿐, 이지……?

응……, 선배의 처음…… 기뻐. 좀 더…… 더 안쪽에 정자 쏟아부어서……
선배한테 내 냄새 잔뜩 배게 하고 싶어…….

아아, 아…… 안쪽, 여기……
여기 찌르면 엄청나게…… 조여. 여기가 좋아? ……푹푹 쑤시면 기분 좋아?

응…… 앓, 아…… 음…….

아아, 이거…… 너무 격렬해서……, 아까 나온 정자가,
울컹울컹 흘러넘쳐…….

안 돼……. 선배, 내꺼…… 흘리지마……. 보지 더 힘내줘, 아, 앓…….

응……, 갔어? 기분 좋은 곳…… 푹푹 누워지면서 가버렸어?

굉장해……. 안쪽이…… 달라붙어, 와서…… 기분 좋아……. 선배, 너무 좋아…….
아……, 허리가 안 멈춰…… 웃.

……혀, 내밀어……. 보지로만 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키스하자…….

앓…… 잠깐, 또, 너무 조여…… 웃, 나도, 갈 것 같아…….

저기, 선배……. 이름 불러줘……. 시키, 하고…….

……웃, 선배……, 좀 더, 더 불러줘…….

앓, 앓…… 아, 선배…… 음, 좋아, 좋아해…… 좋아, 좋아… 좋아…….

하아……, 웃…… 안에…, 꿈틀거리면서…… 웃.

내 걸…… 잔뜩 마시고 있어…….

…응, 맛있어?

……하아, 앓……선배…….

……선배, 선배……. 너무 좋아…….

트랙 05

《후배와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

아..... 좋은 아침.....

몸은 괜찮아?

미안....., 무리하게 해서.....

선배가 자는 동안 일단 다 닦았는데..... 샤워할래?

힘들 테니까 안아서 데려다 줄게.

아, 아니면 배고파?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바로 나가서 뭐든 사올게.....!

피, 필요 없어? 그렇구나.....

저기..... 말야.

그게, 어제는..... 약을 못 먹는 바람에 섹스를 해버렸다..... 라는 느낌이
돼버렸지만,

나, 진심이야.....

선배를 진심으로 좋아해. 오래전부터.

응...... 오래전부터 좋아, 했으니까. 발정기가 가까워서 예민할 때 선배가
가까이에 있으면, 꽤..... 힘들었어.....

남자친구…… 있을 땐, 행복해 보이는 선배 보고
응원하고 싶었고…… 포기하려고 노력했는데…….

헤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점점 참을 수 없게 돼서…….

숨기려고 꽤 차갑게 대했는데도,
선배, 화도 전혀 안 내고 항상 웃기나 하고.

심지어는 간병까지……. 정말, 착해 빠졌다니까…….

솔직히…… 아직 약효가 들긴 했어도,
내 방에서 단둘이라는 게 참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뻐어.

선배는 날 걱정해 줬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이성이 날아가 버렸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어제는…… 저기, 정신이 없어서…….
선배의 대답,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게, 떠올라서…….

이제 내 짝은 당신뿐이야…….
하지만…… 선배가 도저히 싫다고 하면……
앞으로 평생, 짝사랑으로 남을……, 각오는 했어…….

……선배.

하지만 나, 선배랑 함께 있고 싶어.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랑, 사귀어 줘. 짝이 되어줬으면 해.
평생 소중히 할게.

조…… 좋아? 정말로?
기뻐……, 선배…….

……응? 응, 음…… 후후.

응……, 쓰다듬어도 괜찮아. 원하는 만큼…, 응…….

(여주인공을 밀어 넘어뜨린다)

……미안, 선배……, 나 아직 발정, 안 끝났나봐…….

좀 더 선배를, 안고 싶어…….

저기, 부탁이야……. 오늘은 일 쉬고, 계속 같이 있어줘……?

있지……, 둘이서 아기 만들자…….

응……, 좋아해…….

추가 트랙

《연인 섹스와 코넨네》

…웃…… 하아~…….

응…… 굉장해. 기분 좋았어…….

선배도, 좋았어……?

응…….

나도…… 허리, 자제 못하고 움직여서……. 미안, 몸 괜찮아?

응, 다행이다…….

으응……? 음……, 좀 더…… 넣은 채로 있고 싶어, 응…….
……안 돼?

이대로 조금만 더 붙어 있고 싶어…….

(여주 위로 쓰러져서 컷가에)

후우……. 알몸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기분 좋아…….
무겁지 않아?

음……, 선배 몸 부드러워서…… 붙어있으면 안심 돼…….
…이대로 잠들고 싶다…….

……몽개지려나(웃음). 하긴…….

지금은 체중을 너무 실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지만…… 자면 무조건
위험하지…….

음……하지만 아직 붙어있고 싶어……

……아, 그럼 선배가 위로 올라오면? 그럼 괜찮지?

음……, 내가 반대로 누울 테니까, 그대로 위로 올라와……. 응, 차…….

후후……, 좋다. 체중 실어도 괜찮아-…….

음, 아아……, 근데 이거…….

아, 아니……,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 자세…….

기승위로 선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내 가슴팍에 뭉개져있는 거……, 너무 야하다, 싫어서…….

아아, 응……. 역시 눈치챘…… 지. 응, 또 딱딱해져 버렸어…….

미안, 미안. 신경 쓰지 마.

(약간 작은 소리로)

라고 말해도 신경 쓰이겠지만……

오늘은 도저히…… 이 이상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선배……, 힘들잖아?

나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으니까…….

응……, 고마워.

……저기, 손……, 잡고 싶은데… 응…….

선배 손, 정말 작네…….

그런가? 그럼 내 쪽이 커서 그런가?

봐봐, 이렇게 손가락 감아서…… 꼭 쥐면, 전부 감싸지잖아.

(작은 소리로) 으……, 귀여워…….

……저기, 섹스할 때, 나 꽤 세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아파?

아니, 난 괜찮아. 오히려…… 꼬옥 잡아주는 거, 저기…… 기쁘고.

……응, 꼬리? 꼬옥 만지고 싶어?

응, 얼마든지…… 만져줘…….

응, 없어?

설마 그럴 리가……, 아, 내가 밟고 있었다.

꼬리가 완전 엉덩이 밑에 깔려있어……(웃음).

안 아파. 침대가 부드러워서 눈치 못 챘어…….

응, 잠깐, 지금 옆으로 뺄 테니까…….

잠깐만 허리, 들어 올릴게…….

……웃.

……웃차. 꼬리는 구출했…… 는데.

선배……, 지금 목소리는……?

후후……, 미안. 갑자기 질려서 목소리 나왔어?

단단한 채로 계속 들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

…완전 귀여웠어…….

아, 꼬리 맘대로 만져도 돼.

선배네 개랑 어느 쪽이 더 폭신해……?

……웃, 저기-…… 선배?

꼬리 만지는 방식이……, 좀, 오싹한데.

그보다, 뭔가 허리의 움직임이…… 야…, 한 것 같은데…….

안쪽도…… 엄청 요동치고 있…… 는, 아…….

웃, 하아……. 아까 그걸로 스위치 켜졌어?
음……, 한 번 더 하고 싶어……?

아니, 나도…….
선배의 그런 귀여운 목소리 들으면…… 흥분되긴 하는데…….

지금 하면 아마, 아까보다 더 심하게 할 것 같고…….
선배, 오늘은 이미 완전히 지쳤잖아, 웃……!?
선배…… 후, 응…….

웃, 선배…… 음.

하아……, 뭐야. 허 쉼으면서 엉덩이 비틀고……,
허리 들이밀고…… 야하게 졸라대다니 비겁해…… 웃.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기, 선배……, 괜찮아? 격렬하게, 해도……, 응…….

웃…… 키스, 미끌미끌해서 기분 좋아…….

아, 아……. 선배…….

응,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아……. 더 꼭 안아줘……,
체중 전부 실어서.

지금, 너무 깊어……?

하지만, 굉장해…… 아, 웃. 선배의 몸……기분 좋다고 말하고 있어…….

하…… 아, 음…….

딱 붙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움찔거리는 게 전부 전해져서…… 음.

응……, 위험해…….

응…… 좀 더…… 밑에서 찢어줄 테니까……,

선배도 내 끝이, 안쪽…… 안쪽 기분 좋은 곳에…… 응……,

제대로 닿을 수 있게…… 직접 허리, 움직여 줘…… 웃.

……앗, 아…….

아-……, 그렇게나 허리를 흔들고……. 거기가 좋아? …응…….

……웃…….

선배의 쾌감 서린 목소리……, 좋아……. 귀여워…….

아, 웃……, 선배… 여기……, 좀 더……? 응…….

아-…, 으…… 굉장, 해……. 질퍽질퍽 소리나…….

끝쪽을…… 맛있다는 듯이 먹으면서……, 앓…….

하아…… 웃, 갈 것 같아……? 가?

응……, 간다고 말해줘……, 계속……. 좀 더 허리 흔들면서…… 앓…….

그거……, 기분 좋아…….

끝에, 기분 좋아…… 응, 아…… 앓……,

쿵, 으웃…….

선배, 선배…… 웃,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같이, 아앗…… 좋아, 좋아해…… 앓, 아, 음…….

또…… 나와……, 잔뜩 나와…… 웃, 응……,
간다……, 간다, 갈 거야, 가…… 웃.
훗, 으응…… 웃……. 크, 웃…….

하아, 하아……. 좋아해……. 응…….

후우…… 미안, 결국 해버렸네…….
선배가 너무 야해서…… 굉장했어…….

……응?
선배도 못 참았다고……?

…그렇구나……. 후훗…….

아니, 뭐가…, 기뻐서…….

나……, 발정기 끝난 뒤에도 선배랑 있으면 무심코……, 달라붙어 있잖아……?
항상 무리해서 어울려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응……, 왜 어제도 일하다가 하품 참으면서 이상한 표정지었고.

아니, 맞다니까.
그 후로 눈물 글썽이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틀림없어.

아……, 네네…….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응……, 아무튼.

무리시키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 하고…… 좀 고민했는데…….
근데, 선배도 조금은……
날 원한, 다고 생각해준 걸까……, 하고.

어…… 그래?
내가 붙어 있는 거……, 기쁘… 구나…….

하아…, 무리야……. 너무 귀여워…….

웃……, 응?
……아, 아까 못 만진 꼬리……? 그래, 그래……. 자아.

……후후. 쓰다듬을 때의 선배, 나보다 더 집요하지 않아……?
음…… 뭐, 나도…… 기쁘지만…… 응…….

아……, 그거. 거기 쓰다듬는 거…… 기분 좋아……. 으응-…….

후아암……(하품)

응……? 그러게……. 나도……, 졸린 것…… 같아…….

후우…….

저기…… 선배.

……좋아해……….

응-…… 후후…….
음……… 음냐……. 새근…… 새근…….

end—————